

일본경제리뷰 No.18_12

< Special Issue >

2019년도 일본경제 전망

Contents

<Special Issue>	1
I. 한일경제동향	5
II. 이달의 일본경제	
1. 경기·무역 동향	8
2. 경제정책	12
3. 기업전략	16
III. KJCF&KJE News	20
IV. 이달의 추천자료	22
V. 한일경제지표	23



< Special Issue > 2019년도 일본경제 전망

□ 2018년 3분기 GDP, 연율 -2.5%의 마이너스 성장

- 2018년 3분기(7-9월) 일본의 GDP성장률은 전기비 연율 -2.5%로 발표됨. 지진과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성장률을 끌어내려 2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한 것임
- 수출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전기비 1.8% 감소했음. 역시 태풍과 호우의 영향에 따른 공장가동의 보류 및 관서공항의 폐쇄로 전자부품 등의 수출이 감소함
- 개인소비도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외출억제 및 생선야채의 가격상승으로 전기비 0.1%의 소폭감소를 기록함
- 3분기 마이너스 GDP성장률의 배경으로 혹서, 호우,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요인이 많이 지적되고 있기는 하나, 이 같은 일과성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기조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고, 세계경제의 회복속도 둔화를 배경으로 기조로서는 감소국면에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2018년도, 2019년도 모두 성장률 전망치 하향수정

- 2018년도 GDP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0.9%로 예상되고 있음. 3분기의 영향으로 개인소비와 수출의 약세를 고려하여 전회의 예측치로부터 하향수정됨에 따라 성장률은 낮아짐
- 수출은 단기적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공급제약요인의 해소로 회복이 예상되고 있으나, 수출감소의 배경으로는 세계경제 확대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음
- 개인소비는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마이너스로 추이했으나, 고용의 개선, 피고용자 보수의 증가 등 소비를 둘러싼 환경이 양호한 상태에 있어, 앞으로는 평균적으로 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증가속도는 소득환경 개선이 한정된데다, 경기회복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있어 증가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많음

- 2019년도 성장률은 0.7%로 8월의 예상치보다 소폭 하향수정되었음
 - 경기회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속도는 감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미국의 금리상승과 미중간 무역마찰의 영향이 세계경제의 감속을 강화시키는 점, 올림픽 관련 수요가 일순하는 점 등이 경기를 끌어내려 회복속도가 감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이와같이 2018년도, 2019년도는 경기회복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유지될 것이나, 회복속도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함
 - 완만하나마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는 분석 중, 많은 기관들이 무역마찰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있음
 - 무역마찰이 더욱 격화, 장기화되면, 세계무역의 정체로 세계경제가 실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세계경제에 대한 무역마찰의 악영향이 우려되는 지적이 많음
 - 더욱이, 일본의 대미 자동차수출에 대하여 미국이 추가관세를 발동하게 되면, 일본의 성장률은 크게 떨어지는 등, 미국의 통상정책으로 인한 일본의 리스크도 많이 지적되고 있음

① 개인소비

- 2018년 3분기 개인소비는 전기비 0.2% 감소함.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외출자제와 에너지가격 상승이 개인소비를 떨어트림
 - 앞으로는 노동수급의 팽박과 이에따른 임금상승을 배경으로 증가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많음
 - 다만, 개인소비의 증가속도에 대해서는 월례임금의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지 않는 점을 들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2019년 10월에는 소비세 인상이 예정되어 있음
 - 개인소비에 대한 소비세 인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2014년과 비교하여, 인상폭이 적은 점, 많은 부담경감조치가 예정되어있는 만큼, 소비세인상이 개인소비의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② 설비투자

- 2018년 3분기의 설비투자는 전기비 2.8% 감소로 8분기만에 감소함. 2분기의 높은 증가로부터의 반동, 자연재해의 영향에 따른 공급계약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임
- 앞으로는 일손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성력화투자와 생산성향상 투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수요가 견조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설비투자는 계속 경기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다만 현재는 중국경제의 감속 및 원재료가격 상승, 일손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기업실적 개선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도 많고, 설비투자의 증가요인인 고수준의 기업실적이 부진함으로써, 증가속도가 완만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음

③ 9개 항목의 소비세 증세대책

- 일본정부는 11월 26일 경제재정자문회의와 미래투자회의 등 합동회의에서 9개 항목의 소비세증세 대책안을 제시함
 - 주된 내용은 충실한 사회보장책으로서, 유아교육무상화(1.4조엔정도), 연금생활자에 대한 급부금(0.5조엔 정도) 등,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음식료품 등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1조엔 정도), 저소득자 육아세대를 위한 프리미엄상품권(0.2조엔 정도), 소비의 가수요·반동적 감소의 평준화 등임
 - 중소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동차관련 감세(0.1조엔 정도), 주택론 감세 확충(0.1조엔 정도), 주택급부확충(0.1조엔 정도), 무현금 결제에 대한 5%포인트 환원(0.5조엔 정도) 등 방재·피재·국토강인화대책 3개년 긴급대책(3.5-4조엔)이 포함되어, 추정가능한 금액만으로 총액 8조엔에 가까움
 - 이 중 방재·피재·감세, 국토강인화대책의 일부(1조엔 정도)는 홋카이도 지진과 태풍 피해 관련과 함께 2018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나머지는 2020년도에 걸쳐 예산화되어 공공투자 수준유지에 충당
 - 또한 유아교육의 무상화, 급부금, 프리미엄상품권 및 무현금결제의 포인트 환원 등 사실상 소득보전책은 경감세율과 맞물려 소비세 인상에 따른 부담증가를 대폭 완화하는데 충당할 계획임

④ 수출

- 2018년 3분기 수출은 전기비 1.8% 감소로 5분기 만에 감소함.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생산의 정체 및 공항의 일시적 폐쇄가 더해졌고, 세계경제 확대 속도의 둔화 영향을 받아 수출이 감소
- 앞으로는 4분기에 전기의 대폭적인 감소의 반동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후, 세계경기의 지속적인 회복을 배경으로 완만한 증가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물론 회복속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가 심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세계경기의 회복속도는 서서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때문에, 수출은 회복기조를 유지하나, 수출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힘을 잃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둔화로 2% 달성은 요원

- 소비자물가지수는 2018년도가 0.9%, 2019년도는 0.7로 2019년도 예측치가 전회의 예측치로부터 하향수정되었음
- 앞으로는 2019년 노사임금협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업의 임금인상에 대한 신중한 자세가 계속될 전망과, 가계의 절약지향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공세적인 가격설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점 때문에 에너지 이외의 물가는 계속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 에너지가격도 현재 원유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에너지가격과 수입물가의 움직임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완만하게 상승폭이 둔화되어, 소비자물가는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이 때문에 소비자물가는 앞으로도 환율, 유가 등의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쉬운 상황이 계속되나, 2020년도 중에 일본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로 하고 있는 2%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음

□ 2020년도까지 디플레이션 탈출은 어려워

- 이와같은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수급갭(수요-공급력)은 마이너스성장을 했던 2018년 3분기에 제로까지 축소했으나, 4분기 이후 다시 플러스로 반전,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시까지 GDP대비 0.6-0.7%정도에서 추이할 전망이다

- 그러나 소비세 인상 이후는 다시 제로전후로 떨어져, 이러한 상황이 동경올림픽을 거쳐 2020년도 내내 계속할 것으로 예상됨
- 그 결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하락도 있어 소비세인상시까지 1%정도에서 추이, 소비세인상 후에는 서서히 상승률이 둔화할 전망이다
- 즉 현 시점에서는 2020년도까지 디플레이션 탈출은 전망하기 어렵게 됨
- 이같은 상황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전술한 소비세증세대책의 구체화 등에 있어서 어떤 정책판단을 해나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임

I. 한일 경제 동향

□ 對日 무역구조

- 한일 간 무역은 구조적으로 품질 등에 의해 가격차이가 있는 산업 내 수직적 제품 차별화 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이에 한일 간 무역은 가격환산품질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큼
- 한국의 對日 무역구조는 섬유류와 농수산물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역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본재, 부품, 소재류 분야에서 역조 폭이 큼
- 한국의 만성적인 對日 역조는 한마디로 한국제품의 對日 경쟁력이 일본제품의 對韓 경쟁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데 기인하고 있음
- 생산비용과 품질 및 환율 외에도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일본인 직접투자가 한국제품의 對日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對日 비관세장벽 대책과 일본인 직접투자정책은 對日 통상정책의 핵심임
- 2017년 기준 한국 수출의 對日 의존도는 4.7%, 수입의 對日 의존도는 11.5%
- 한편, 2017년 한국 제품의 일본수입시장 점유율은 4.2%

□ 11월 중 對日 무역

- '18. 11월 對日 무역적자는 1,577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적자폭이 감소

- 對日수출은 2,749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1.2% 감소로 반전
 - 10대 對日수출품목에 산업기계 대신에 기초산업기계가 포함된 가운데, 농산물의 對日수출 증가폭이 10.1%로 증가폭이 가장 큼(한일경제지표 1 참조)
 - 對日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광물성연료의 對日수출 감소폭이 -14.1%로 가장 큼
- 對日수입도 4,325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12.7%의 큰 폭 감소로 반전
 - 10대 對日수입 중 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일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정밀기계의 對日수입 감소폭이 -31.5%로 가장 큼

< 2018년 11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 달러,%) >

	2018.10월			2018.11월			2018.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對日수출	2,782	50.5	13.2	2,749	9.1	-1.2	28,159	15.6
對日수입	4,957	12.2	18.6	4,325	-8.6	-12.7	50,328	0.3
무역수지	-2,175	-15.4	26.3	-1,577	-28.7	-27.5	-22,170	-14.1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일본인 직접투자

- '18.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크게 감소
 - '18.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96백만 달러로 전기대비 81.0% 감소
- 한편 '18. 10월 일본의 對韓직접투자는 289억 엔으로 전기대비 89.2% 감소
 - '18. 10월 對韓직접투자는 일본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0.8%로 수출의 對韓수출비율 7.5%에 비하여 크게 낮음

< 일본인 직접투자 추이 >

(단위: 억엔)

	2017	2018 2분기	2018 3분기	2018.9월	2018.10월
일본인직접투자(백만달러, %)	1,862 (90.1)	504 (37.0)	96 (-81.0)	-	-
전체 외국인직접투자(백만달러, %)	22,970 (7.8)	10,820 (119.3)	3,449 (-68.1)	-	-
일본의 對韓직접투자(억 엔, %)	4,112 (18.8)	1,038 (4.5)	3,265 (214.5)	2,653 (794.6)	289 (-89.2)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억 엔, %)	559,108 (-18.0)	145,925 (-29.3)	136,902 (-6.2)	59,875 (83.1)	36,613 (-38.9)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일본인투자는 신고기준, 일본의 대한투자는 국제수지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재무성

-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0억 달러의 투자를 받기로 함(2018.11.20. 연합뉴스)
- 이는 2015년 6월 소프트뱅크 그룹의 10억 달러 투자 이후 이루어진 추가 투자로, 국내 인터넷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임
- 복지용구 및 홈 헬스케어 전문기업 케어빌리지가 일본의 복지용구 선두기업인 프랑스베드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밝힘. 양사는 정확한 투자 금액은 밝히지 않았음(2018.10.23. 서울경제)
- 프랑스베드는 70년 전통의 일본 복지 용구 선두기업으로 의료용 전동침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버용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음. 국내 시장은 케어빌리지가 프랑스베드의 의료용 전동침대를 독점 수입해 렌탈 및 판매하고 있음
- 이번 투자 유치는 프랑스베드와 긴밀한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가능성이 충분한 한국 복지 용구 시장의 성장을 함께 도모한다는 취지로 진행되었음

□ 인적교류

- '18. 11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 전월대비 3.3% 증가
 - 11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방문자수는 299,978명으로 10월보다 3.3% 증가
 - 그동안 일본인 관광객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한일관계 악화와 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음

- '18. 11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 3.0% 증가
 - 11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자 수는 588,200명으로 10월보다 3.0% 증가
 - 이에 관서지역과 홋카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정부의 관광부흥지원사업 효과도 있음

II. 이달의 일본경제

1. 경기·무역 동향

□ 3분기 GDP(개정치)감소폭 더 커져

-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018년 3분기(7-9월) GDP개정치(2차 속보치)는 실질 전기비 0.6% 감소, 연율환산으로는 2.5% 감소함
 - 이는 11월에 발표한 속보치(전기비 0.3% 감소, 연율 1.2% 감소)보다 대폭 하향수정된 수준임
 - 연율 -2.5%는 2014년 소비세인상 직후인 2014년 4-6월기(7.3% 감소)이래 4년 1분기만에 큰 감소임
- 기업의 설비투자가 속보단계 추계치에서 크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떨어진 것이 주된 원인임
 - 설비투자는 전기비 2.8% 감소, 속보치(0.2% 감소)에서 큰 폭으로 하향수정되어 마이너스 폭이 2009년 7~9월기 이후 4년 1분기만에 크게 감소했음
 - 설비투자의 큰폭 감소 감소에 따라, GDP성장율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는 0.5% 감소도 속보치(0.2% 감소)보다 크게 떨어짐
- 내수 중 GDP의 50%를 점하는 개인소비는 0.2% 감소함. 2분기(0.7% 증가)에 비하여 크게 떨어짐
- 수출은 1.8% 감소로 5분기만에 마이너스로 반전. 자동차수출이 부진한 이외에,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물류망이 차단되는 등 수출에 차질을 빚음

< 2018년 3분기 GDP성장율 >

		2017	2017			2018		
			2/4	3/4	4/4	1/4	2/4	3/4p)
GDP	전기비	1.7	0.5	0.7	0.4	-0.3	0.7	-0.6
	연율환산	1.7	2.1	2.7	1.5	-1.3	2.8	-2.5
개인소비(전기비)		1.0	1.0	-0.8	0.4	-0.3	0.7	-0.2
주택투자(상동)		2.7	1.9	-1.8	-3.3	-2.1	-1.9	0.7
설비투자(상동)		2.9	0.9	1.7	1.1	0.4	2.8	-2.8
정부소비(상동)		0.2	-0.1	0.2	0.0	0.2	0.1	0.2
공공투자(상동)		1.2	3.3	-2.3	-0.6	-0.5	-0.5	-2.0
수출(상동)		6.7	-0.2	2.7	2.1	0.5	0.3	-1.8
수입(상동)		3.4	1.7	-1.0	3.1	0.2	1.0	-1.4

자료: 내각부, p)는 개정치(2차 속보치)

□ 경기회복 지속

- 다소 주춤했던 일본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10월 경기동향지수(2018년 100, 속보치)는 경기현황을 나타내는 일치지수가 104.5로 2개월만에 상승. 전월비 상승폭은 2.9포인트로 1989년 3월 이후 가장 컸음
 - 9월에 이따른 자연재해의 제약이 해소되어 소비와 생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수치가 향상됨
 - 그러나 내각부의 기초판단은 담보상태에 있다는 전월의 판단을 유지함. 개선으로 상향수정하기 위해서는 지수(3개월 후방이동평균)가 3개월 이상 연속 상승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일본경제는 재해의 영향이 일순하는 가운데, 각종 정책의 효과도 있어 설비투자과 개인소비 등의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임
 - 일본경제의 현재와 같은 회복세가 2019년 1월까지 이어질 경우, 57개월간 지속된 고도성장기의 「이치나기 경기」를 넘어(2017년 12월), 74개월이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록을 갱신하게 됨

- 10월의 실질소비비는 전년 동월대비 0.3%의 약간 감소
 - 야채와 육류 등 식료품의 소비지출이 감소
 - 그러나 소매판매액은 전월비 3.6% 증가
- 10월의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선박·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기계수주액은 석유, 석탄 조선업의 투자증가에 힘입어 7.6% 증가
 - 「일본은행 단관(短観, 2018년 12월)」에 의하면 기업의 투자계획은 18년만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기업들로 부터는 시장의 변화가 우려되기는 하나 현단계에서 투자의 재검토는 없다는 것임
- 10월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2.9% 상승, 전년대비로도 4.2% 증가
 - 컨베이어와 수관보일러 등 범용·업무용 기계공업의 생산이 호조를 보임
- 10월의 완전실업률은 전월보다 0.1%포인트 높은 2.4%로 악화
 - 3개월만의 악화로 남성근로자의 자발적 실업이 이에 기여함
 - 유효구인배율은 전월보다도 0.2포인트 낮은 1.62배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자연재해로 인해 중단되었던 구직활동의 재개됨에 따라 구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임
- 11월의 실질수출은 전월대비 3.8% 감소
 - EU에 대한 실질수출이 전월대비 8.3% 감소로 크게 부진
 - 앞으로 해외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을 배경으로 회복이 지속될 전망이나, 미중 무역전쟁 등, 통상문제의 동향이 세계경제에 미칠지도 모르는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 11월의 소비자물가는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로 전월에 이어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 유가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이 이에 기여함. 전월대비로는 0.0%로 제자리 걸음

- 일본의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중에도 물가와 임금 상승폭이 작은 편인데,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남아있어, 중장기적인 예상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일본이 강력한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

□ 무역수지 적자 반전

- 11월 무역수지(통관기준)는 7,373억 엔 적자로 전월의 4,501억 엔 적자보다 적자폭이 크게 증가
 -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월의 4,062억 엔 적자에서 5,031억 엔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된 한편,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5,734억 엔 흑자에서 6,234억 엔 흑자로 흑자폭이 확대
 - 전월비 수출의 감소 반전이 무역수지적자 확대에 이어짐
- 11월 수출액은 전월대비 4.2% 감소한 6조 9,276억 엔
 - 수출수량 감소효과 외에 수출금액 감소효과가 발생
 - 5대 수출 품목 변함이 없고 모두 감소한 가운데, 원동기의 수출감소폭이 -10.8%로 가장 큼(지표 4)
 -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6.2%로 가장 큼(지표 5)
 - 한국에 대한 수출은 전월대비 5.3% 감소
- 11월 수입액은 전월대비 0.0% 감소한 7조 6,649억 엔
 - 수입수량감소효과가 일부 수입금액증가효과에 의해 상쇄됨
 - 의약품 대신에 석탄이 5대 수입 품목에 포함된 가운데, 의류·동부속품의 수입감소폭이 -24.9%로 가장 큰 반면, 원유는 수입증가폭이 19.3%로 가장 큼(지표 6)
 - 주요 지역별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감소폭이 -10.4%로 가장 큰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수입증가폭이 4.7%로 가장 큼(지표 7)

< 2018년 11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8.10월			2018.11월			2018.1-11월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금액	증가율 전년 동기비
수 출	7.2	8.2	7.5	6.9	0.1	-4.2	74.3	-4.6
수 입	7.7	19.9	16.7	7.7	12.5	-0.0	75.6	-9.6
수 지	-0.5	-	-	-0.7	-	40.0	-1.3	-

자료 : 재무성

- 11월의 엔화환율(대미달러)은 113.4엔으로 전월대비 0.5% 엔저
 - 12월 들어서는 엔저가 주춤, 111엔대에서 추이하고 있는데, 미국 경기의 감속우려와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으로 인해 리스크가 낮은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對원화 환율은 100엔당 996원으로 전월비 0.7% 원고(엔저)
- 10월의 해외직접투자는 전월대비 38.9% 감소한 3조 6,613억 엔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린필드형 투자와 M&A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2016년 이후 M&A의 비중이 그린필드형 투자를 상회하고 있을 만큼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의 대외M&A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 해외 현지의 수요확대를 예상한 대외M&A의 증가, 둘째, 금융완화책과 기업가치향상에 대한 의식개혁의 영향, 셋째, 세계적인 크로스보더 M&A증가 등을 들 수 있음
 - 對한국 직접투자는 전월대비 89.2% 감소한 289억엔
- 10월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월보다 27.8% 감소한 1조 3,099억엔
 - 해외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 등 직접투자수익은 증가했으나 무역수지는 감소반전

2. 경제정책

□ 연금·고용 분야의 집중개혁

- 일본정부가 연금·고용 집중 계획을 발표함

- 대상기간은 2019-2021년 3년간으로 연금과 고용 의료 등의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키로 함. 특히 전회 작성시 2015년부터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항목을 대폭 늘릴 계획임
- 그러나 소비세 인상대책으로 팽창된 세출을 보전하는 데는 부족하고, 재정건전화 목표달성 전망은 어려움
- 아베 총리는 2018년 6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8」에 입각하여 금년 중으로 새로운 공정표를 책정토록 지시한바 있음
 - 일본정부는 2019-2021년을 기간강화기간으로 설정하여, 공정표에서는 우선 1년내에 고용개혁을 단행할 것임을 명기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생애현역사회를 조성키로 함
 - 또 3년간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개혁을 추진할 방침임
- 공정표에서는 65세 이상에 대한 계속고용연령의 인상을 위한 이제까지의 검토에 입각하여 연금개혁을 추진키로 함
 - 고령 근로자의 증가를 고려하여, 연금수급 개시기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추진함
 - 사회보장제도개혁에 관한 항목은 2015년에 작성한 전회의 공정표에서는 44개 항목이었으나 이번에는 100개 가까운 항목을 열거했음
 -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약가는 기간마다 매년 개정키로 함. 저가의 후발의약품의 보급도 추진키로 함
- 인생 100년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건강수명을 늘리는 제도도 강화함
 - 건강진단실시율을 높여, 메타볼릭신드롬(대사증후군)의 해당자나 예비군을 2022년까지 2008년도에 비하여 25%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건강수명을 늘려 고령자고용을 늘리면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봄

- 사회보장제도개혁으로 세출삭감을 실시하는 한편, 경제성장력을 높이는 데도 목표를 두고 있음
- 예를 들면 지방행정의 효율화나 인프라정비의 민간활용,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공가나 공점포의 재생을 위해, 2017-2022년간 약 500억엔을 투자할 계획임. 동경 일극집중을 억제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주력기로 함
- 일본정부는 기초적 재정수지(PB)를 2025년도에 흑자화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정표에 담은 일련의 시책들이 재정건전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불투명함
- 공정표에서는 세출개혁의 초점이 되는 사회보장비의 증가율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가 등 구체적인 목표액은 명기하고 있지 않음
- 나아가 공정표에서는 고령자의 부담증가로 이어지는 제도변경 등 고통을 수반한 개혁은 추진하지 않고 있음. 재정건전화의 관점에서는 역부족으로 더욱 효과가 높은 구체적인 정책은 보류됨

□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① 대기업의 연구제휴활동 지원, 위탁비용의 일부에 대한 세제상 우대
- 일본 정부와 여당은 기업과 산업의 경계를 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끼리의 위탁연구에 대한 세제제상의 우대책을 새로이 만들 방침임
- 위탁 관련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함
- 다른 강점을 가진 대기업끼리의 협력을 지원하고,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와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 쉽도록 하기 위해서임
- 자민당 세제조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2019년도 여당 세제개정대강에 연구개발세제의 확충방침을 담은 방향임
- 연구개발세제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율에서 공제받는 제도로서, 공제의 상한은 현재 법인세의 5%, 자체 연구개발 외에 대학이나 중소기업에 연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비용의 일부를 공제해줌

- 우선 대학이나 중소기업과의 제휴를 중시, 대기업에 대한 연구위탁은 이제까지 세제상의 우대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2019년도 세제개정으로 새롭게 우대대상에 추가됨
 - 공제가 가능한 금액의 비율은 위탁비용의 15-20%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임
 - 우대하는 위탁연구의 내용은 선별함
 - 예를 들면, 위탁선 기업에게 특별한 노하우나 특허 등이 있어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에 한정됨
 - 어떤 기업에서도 가능한 시제품 테스트 등 단순한 것은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임
- ②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
 - 한편, 민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일본정부가 특히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임
 - 법인세액으로부터 공제되는 금액을 늘려, 스타트업과 제휴하는 기업들에게도 우대를 해준다는 내용임. 업종간 경계나 기업규모를 뛰어넘어 추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서임
 - 현행 연구개발세제에서는 기업이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공제액의 상한은 법인세액의 25%임. 독자성이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기업의 경우는 상한을 약 1.5배인 40%정도까지 인상할 방침임
 - 공제액을 늘리게 되면 기업이 연구개발에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토록 하는 지원이 됨.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및 경제산업성은 모든 기업에게 상한을 30%로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와 여당은 이를 보류할 방향임
 - 스타트업과 제휴하는 기업들에게도 세제상 우대조치를 실시할 방침임
 - 스타트업기업의 기술에 착안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동연구, 연구위탁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 공동연구와 위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통상적인 공제와는 별도로 일정 비율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연구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는 비용의 2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가능함
- 2019년도 세제개정에서는 상대가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인 경우는 5%를 추가하여 2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공제되는 상한액도 현재는 법인세액의 5%까지이나 10%까지 확충함
- OECD에 의하면, 일본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16년에 1,30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미국과 중국에 다음가는 규모이나 증가율은 주요국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임
- 일본정부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를 2020년에 18조엔까지 늘릴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세제상 우대조치의 확충으로 기업들이 유동성자금을 늘리고, 연구개발에 돌리는 자금을 확보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계획임

3. 기업전략

□ 히타치 ABB사의 송배전사업 매수로 세계 정상

- 히타치제작소는 12월 12일 발전소에서 일으킨 전기를 기업이나 가정에 보내는 송배전 등 전력 시스템사업에서 세계 최대기업인 스위스 ABB사로부터 동부문을 매수하기로 함
- 매수총액은 8,000억엔으로 결정, 히타치의 M&A로서는 과거 최대금액임. 송배전사업은 재생 에너지의 보급이나 신흥국의 전력망 정비 분야에서 성장이 예상됨
- 이에 따라 히타치는 송배전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서게 되고 중전분야에서도 2위인 독일 시멘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됨
- 전력시스템사업은 전력회사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전선을 부설함. 설비운영을 수탁받아,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망 전체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태양광발전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변화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IT정보기술을 사용한 고도의 제어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나아가 지역단위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는 스마트그리드(차세대송전망) 개발도 예상됨. 히타치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사업과의 상승효과도 노리고 있음
- 먼저, ABB가 대상사업을 분사화하고, 분사한 신회사에 히타치가 80.1%를 출자하고 단계적으로 출자비율을 높여 수년에 걸쳐 완전 자회사화 할 예정으로 최종 매수가액은 7,000억엔을 상회하게 됨
- 단계적인 매수로 해외에서의 사업경험을 쌓으면서 환경변화 등 리스크를 경감함
- ABB는 산업용 전기의 세계 최대기업으로, 전력부분은 제어시스템을 포함한 송배전 설비의 제조나 운영에 관여하고 있음
- 유럽과 북미 외에 인도와 중국 등 신흥국에도 진출하고 있음
- 2017년 부문매출액은 약 103억달러, 영업이익이익율은 약 8%를 확보하고 있음. 설비 납품만이 아니고 송배전시스템 전체의 운영에도 관여, 매출액의 40% 이상을 서비스에서 벌고 있음
- 히타치와는 2015년에 전력설비의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고 있음
- ABB는 주력인 산업기기사업과의 상승효과가 예상되기 어려운 송배전사업을 포기하고 공장자동화나 로봇 등 강점이 있는 경영자원을 집중시키고 있음
- 히타치의 전력·에너지 사업의 매출액은 2018년 3월기에 4,509억엔, 영업이익이익율은 6% 정도에 그침
- 발전설비 외에 송배전·변전 설비, 재생에너지 등을 폭넓게 관여하고 있으나, 국내사업이 90%이상을 점함. 원전관련 등 주력인 국내 전력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 개척이 과제로 되고 있음
- 히타치는 2022년 3월기 연결매출액 영업이익이익율을 10%로 3년 연속 2%포인트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국내외 약 900개사의 그룹기업의 정리·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해외성장을 위해 M&A를 적극화할 방침임

□ JDI 재건책 위기에

- 일본의 최대 액정 업체인 저패디스플레이(JDI)의 재건책이 절박한 위기에 놓여있음
 - 2018년 3월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했으나, 악화된 재무사정으로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액정사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긴급한 과제임
 - 이에 중국의 펀드 등과 출자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중마찰의 격화 등의 상황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음. JDI의 공장에서는 가동을 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음.
- 액정사업의 계속과 앞으로 유기EL패널의 양산에는 많은 투자자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JDI는 재무체질의 강화를 위해, 2019년 3월을 목표로, 중국정부의 신경제 권구상 「일대일로」를 자금면에서 지탱해주는 정부계 펀드인 「실크로드 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업연합 등 다수의 그룹과 교섭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출자금 교섭에 미중마찰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
 - 미국 트럼프 정권이 중국의 하이테크산업 육성에 경계감을 강화하고 있음. JDI에 중국자본이 들어오면 미국기업인 애플이 액정패널 구입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
 - 최대고객인 애플이 구입하지 않으면 재건시나리오의 전제가 근본부터 무너지게 됨
- JDI는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소니의 액정사업을 통합, 히노마루액정이라고 하여 2012년에 발족했음
 -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중소형액정 분야에서는 세계시장점유율 20%를 점하는 최대 업체임
 - 그러나 최근 수년 중국의 패널업체가 대두. 판매대수를 늘리고 있는 화웨이기술과 샤오미 등은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제 패널을 구입함에 따라, JDI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기술력의 차이도 좁혀지고 있다는 평가도 들리고 있음
- 애플이 2017년 아이폰에 유기EL패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도 실적부진에 박차를 가했음

- 유기EL패널은 한국 삼성전자가 90%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JDI는 시제품 단계에서 판매감소에 직면하게 됨
- JDI는 2018년 3월기까지 4기 연속으로 연결 최종적자에 빠져, 1,400억엔 이상을 들여 공장폐쇄와 인원삭감 등의 구조개혁을 실시했음. 그동안 재무사정은 악화되어왔음
- 상장된 2014년 3월기말에는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이 53.3%이었으나, 2018년 3월기말에는 13.1%까지 저하
- 2018년 4월에는 해외기관투자와와 일화학공업을 대상으로 한 제3자 할당증자로 약 350억엔을 조달했으나, 2018년 9월말에도 16.2%로 제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20-30%를 하회함
- 나아가 흑자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미국 애플사가 액정을 구입한 신기종 「아이폰XR」의 판매부진이 관측되고 있음.
- JDI는 스마트폰용 패널 전체는 금년 중으로는 감산예정이 없다고 하나, 스마트폰용 공장가동율이 7-9월기에 81%에서 10-12월기에는 75%로 하락한다는 미국 조사기업의 예측도 나오고 있음

III. KJCF & KJE News

□ 한일재단 · 한일경제협회 사업 및 행사 개최 결과

<p>2018 일본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 사업설명회</p> <p>일시 : 2018년 12월 4~6일</p> <p>장소 : 일본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p>	
<p>2018년도 소비재분야 우수제품 일본시장 진출 상담회</p> <p>일시 : 2018년 12월 12일(수)</p> <p>장소 : 일본 도쿄</p> <p>규모 : 국내기업 15사</p> <p>내용 : 일본시장진출전략 세미나 및 일본 바이어 41사와 109건 상담을 통한 국내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지원</p>	
<p>제조강국 일본 중소기업형 모노즈쿠리 IoT 전략 세미나</p> <p>일시 : 2018년 12월 12일(수) 14:00~18:00</p> <p>장소 : 홀리데이인 인천송도호텔 2층 그랜드볼룸</p> <p>규모 : 약 80명</p> <p>강연 : IoT를 활용한 일본의 제조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제조혁신 및 스마트 팩토리 추진전략, 일본 현장사례: IoT를 활용한 품질 · 생산성 향상 등</p>	
<p>한일산업기술포럼</p> <p>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 10:00~13:00</p> <p>장소 : 웨리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 1층 로얄볼룸</p> <p>규모 : 약 130여명</p> <p>내용 : 한국 4차산업혁명의 현황과 정책과제, 스마트화 사회를 실현하는 신산업혁명과 Industrie4.0, 기업현장에서의 4차산업혁명, 한일협력의 방향성 등</p>	

□ 한일재단 & 한일경제협회 한일협력사업 모집 안내

「4차산업혁명 전문가 스마트팩토리 인재육성」 참가 모집 안내

- 목 적 :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 및 관리 할 수 있는 인재육성
- 참가대상 : 국내 제조기업 재직자
- 일 정 : 2019. 1. 21(월)~25(금) 10:00~17:00

구 분	지역(A)	지역(B)	비고
2019년 1월	21(월) 경기 (시흥비즈니스센터 2F)	충북 청주 (락히 호텔)	·1일집체교육 ·순차통역 (한국어 ↔ 일본어)
	22(화) 경기 (시흥비즈니스센터 2F)	대구 (AW호텔)	
	23(수) 광주 (프라도호텔 에메랄드룸)	대구 (AW호텔)	
	24(목) 광주 (프라도호텔 에메랄드룸)	부산 (파라곤 호텔 사파이어)	
	25(금) 대전 (굿모닝레지던스 휴)	부산 (파라곤 호텔 사파이어)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및 강사 (A 일정)	내용 및 강사 (B 일정)
10:00 ~ 11:00	- 모노즈쿠리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추진의 필요성 (조용원 한일재단 모노즈쿠리 지도위원)	(우종남 한일재단 모노즈쿠리 지도위원)
11:00 ~ 12:00	-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설계 및 4차 산업혁명 9대 핵심기술 (한석희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부회장)	(변종용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사무국장)
12:00 ~ 13:00	중 식	
13:00 ~ 14:00	- 스마트 제조혁신 및 스마트 팩토리 추진전략 (임재영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고문)	(박한구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회장)
14:00 ~ 16:00	- 일본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현황 및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활용 사례 (아베 타케시 아오야마가쿠인 휴먼이노베이션 주관연구원)	(박영원 일본 사이타마 대학 경제학부 교수)
16:00 ~ 17:00	- 스마트 팩토리 도입사례 : 시행착오를 통한 도입 노하우 (민수홍 (주)프론틱 대표이사)	(최원석 (주)삼천산업 대표이사)

☞ 자세한 내용은 http://kjc.or.kr/news/recruit_view.jsp?recr_idx=4640

IV. 이달의 추천자료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리포트(<http://www.kjc.or.kr/jpinfo/report.jsp>)

- 『지역미래전인기업 사례(12) 기사로』 2018-12-20
- 『지역미래전인기업 사례(11) 요도가와휴테크』 2018-12-18
- 『제조강국 일본 중소기업형 모노즈쿠리 IoT 추진 세미나 자료』 2018-12-13
- 『모노즈쿠리 기반 스마트팩토리 세미나(부산 개최) 자료』 2018-11-22

□ 일본기관 연구보고서

- 『2019년 일본 통상정책의 과제』 미즈호종합연구소, '18.12.22

<https://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insight/pl181221.pdf>

- 『엔화환율전망』 일본 종합연구소, '18.12.22

<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exchange/pdf/10829.pdf>

- 『신경제·재정재생계획개혁공정표』 일본내각부, '18.12.21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18/1220/shiryo_01-1.pdf

- 『일본산업의 중기전망(2019-2023)』 미즈호은행, '18.12.07

<https://www.mizuhobank.co.jp/corporate/bizinfo/industry/sangyou/m1060.html>

- 『놀란만한 일본기업의 수익성 향상 : 그 비밀과 지속성』 자본시장연구회 '18.12.07

<http://www.camri.or.jp/files/libs/1191/20181205170546753.pdf>

- 『원자력정책동향』 경제산업성, '18.12.06

http://www.meti.go.jp/shingikai/enecho/denryoku_gas/genshiryoku/pdf/018_03_00.pdf

- 『일본 과학연구력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18.12.04

<http://data.nistep.go.jp/dspace/bitstream/11035/2456/3/NISTEP-booklet001%28ver.1%29.pdf>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전략』 일본정책금융공고, '18.12.01

https://www.jfc.go.jp/n/findings/pdf/ronbun1811_04.pdf

-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기본방침』 경제산업성, '18.11.28

<http://www.meti.go.jp/press/2018/11/20181127001/20181127001.html>

- 『일본 제조기업의 해외사업전개에 관한 조사보고』 국제협력은행, '18.11.27

<https://www.jbic.go.jp/ja/information/press/press-2018/1126-011628.html>

- 『일본 통계연감 2019년』 총무성, '18.11.23

<http://www.stat.go.jp/data/nenkan/68nenkan/index.html>

V. 한일경제지표

1) 2018년 11월 對日 수출 10대 품목 (백만 달러, %)

순 위	품 목 명	2018.10월			2018.11월			2018.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총 계	2,782	50.5	13.2	2,749	9.1	-1.2	28,159	15.6
1	광물성연료	624	410.7	-22.9	536	35.1	-14.1	4,817	83.1
2	철강제품	358	23.1	15.1	355	12.3	-0.8	3,751	5.4
3	정밀화학제품	186	60.7	19.2	191	25.9	2.7	1,868	29.6
4	전자부품	167	14.1	6.4	170	9.4	1.8	1,721	10.3
5	석유화학제품	158	66.3	-9.2	168	11.2	6.3	2,014	36.6
6	산업용전자제품	127	17.4	35.1	110	-24.3	-13.4	1,344	-2.2
7	수송기계	113	10.3	-1.7	109	-10.8	-3.5	1,268	-11.2
8	농산물	89	14.2	9.9	98	-14.2	10.1	1,013	3.4
9	기계용소공구·금형	92	22.4	15.0	92	-3.3	0.0	962	-5.4
10	기초산업기계	76	33.7	28.8	83	18.5	9.2	819	9.3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18년 11월 對日 수입 10대 품목 (백만 달러, %)

순 위	품 목 명	2018.10월			2018.11월			2018.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총 계	4,957	12.2	18.6	4,325	-8.6	-12.7	50,328	0.3
1	철강제품	596	28.4	19.9	569	2.7	-4.5	6,235	11.9
2	전자부품	610	-13.1	12.5	501	-16.3	-17.9	5,901	-3.5
3	정밀화학제품	468	41.1	23.5	438	10.4	-6.4	4,462	15.5
4	석유화학제품	375	11.5	5.9	404	16.2	7.7	3,768	-7.1
5	정밀기계	539	-4.4	12.1	369	-34.9	-31.5	6,444	-10.2
6	산업용전자제품	269	16.0	8.9	259	-6.4	-3.7	2,971	7.7
7	수송기계	334	18.1	59.8	255	-15.7	-23.7	2,587	0.3
8	기초산업기계	229	-12.8	17.4	208	-29.7	-9.2	2,534	-14.3
9	플라스틱제품	206	10.9	19.8	193	-5.9	-6.3	2,052	-5.2
10	산업기계	204	39.6	21.4	170	10.9	-16.7	2,009	1.9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일본 주요경제지표

구 분		2017	2018					
			2/4	3/4	8월	9월	10월	11월
GDP증가율(실질,연율,%)		1.7	2.8	-2.5p	-	-	-	-
경기동향지수(2010년100)		-	-	-	102.7	101.6	104.5	-
광공업생산증가율(전기비,%)		4.5	1.3	-	0.2	-0.4	2.9	-
실질소비증가율(전년비,%)		-0.3	-1.4	-	2.8	-1.6	-0.3	-
기계수주액증가율(전기비,%)		-1.1	2.2	-	6.8	-18.3	7.6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비	0.5	-0.1	-	0.3	0	0.3	0.0
	전년비	0.5	0.7	-	0.9	1.0	1.0	0.9
실업률(%)		2.8	2.4	-	2.4	2.3	2.4	-
수출액(조엔)		78.3	20.2	20.1	6.7	6.7	7.2	6.9
수입액(조엔)		75.4	19.4	20.7	7.1	6.6	7.7	7.7
무역수지(조엔)		2.9	0.8	-0.6	-0.4	0.1	-0.5	-0.7
경상수지(조엔)		22.0	4.9	-	1.8	1.8	1.3	-
해외직접투자(조엔)*		55.3	14.6	-	3.3	6.0	3.7	-
환율	달러	112.1	109.1	111.5	111.1	111.9	112.8	113.4
	원화(100엔)	1,009	989	1,007	1,010	1,003	1,003	996
금리(10년물,%)		0.041	0.089	0.098	0.101	0.115	0.135	0.105
주가(닛케이,엔)		20,209	22,341	22,654	22,494	23,159	22,691	21,968

주: p)는 개정치(2차 속보치) *실행액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4) 2018년 1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억 엔, %)

순위	품목	2018.10월			2018.11월			2018.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1	자동차	11,356	7.3	13.0	11,033	-0.5	-2.8	112,239	4.8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844	10.5	9.3	3,587	-0.1	-6.7	38,067	4.3
3	자동차부품	3,440	5.9	-1.6	3,318	-3.7	-3.5	36,387	3.0
4	철강	3,031	13.5	14.2	2,987	2.9	-1.5	31,581	6.1
5	원동기	2,734	22.1	7.7	2,440	0.2	-10.8	26,887	8.0

자료: 일본 재무성

5) 2018년 11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억 엔, %)

순위	국가	2018.10월			2018.11월			2018.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1	미국	14,299	11.6	10.5	13,905	1.6	-2.7	140,336	2.4
2	중국	14,756	9.0	16.9	13,844	0.4	-6.2	144,993	8.3
3	ASEAN	11,143	8.7	4.8	11,021	1.4	-1.1	115,478	7.2
4	EU	8,113	7.7	10.4	7,452	3.9	-8.1	83,891	6.7
5	한국	4,963	0.3	3.6	4,698	-9.3	-5.3	53,026	-2.4
6	대만	4,088	6.4	2.8	3,913	-2.1	-4.3	42,773	6.0

자료: 일본 재무성

6) 2018년 1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억 엔, %)

순위	품목	2018.10월			2018.11월			2018.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1	원유	7,670	33.7	6.1	9,147	44.0	19.3	80,779	26.6
2	액화천연가스	4,181	49.3	8.3	4,088	37.6	-2.2	42,559	20.2
3	석탄	2,353	14.3	0.5	2,738	27.4	16.4	25,521	10.0
4	의류 등 동부속품	3,606	25.2	6.6	2,708	1.3	-24.9	30,500	6.7
5	반도체 등 전자부품	2,818	13.3	20.5	2,511	-2.1	-10.8	25,892	1.0

자료: 일본 재무성

7) 2018년 11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억 엔, %)

순위	국가	2018.10월			2018.11월			2018.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1	중국	18,817	16.1	15.2	18,875	4.2	0.3	175,817	4.9
2	ASEAN	11,767	16.4	27.0	10,981	6.7	-6.7	113,525	7.9
3	EU	8,843	10.0	17.0	8,834	15.1	-0.1	88,940	11.6
4	미국	8,566	34.3	21.6	7,671	8.1	-10.4	81,405	10.1
5	호주	4,429	35.2	3.0	4,455	16.9	0.6	46,062	16.4
7	한국	3,107	22.0	12.8	3,252	11.9	4.7	32,315	13.5

자료: 일본 재무성